국립공원 명승 및 사적 미토쿠산 나게이레도 요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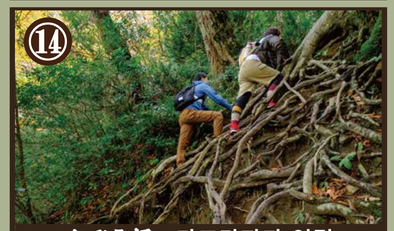
日本遺産 JAPAN HERITAGE

国宝 投入堂（附 愛染堂）
국보 나게이레도 불당과 아이젠도 불당

鐘楼堂　쇼로도 불당

文殊堂　몬주도 불당

クサリ坂　구사리자카 언덕



カズラ坂　가즈라자카 언덕

三佛寺本堂　산부쓰지 절 본당

⑱참배 등산 사무소
~ ① 국보 나게이레도 불당과아이젠도 불당

·해발 차	200m
·거리	900m
·왕복 소요시간	2h

【국가지정문화재】
① 国宝 投入堂（附 愛染堂）
⑤ 納経堂　⑨ 地蔵堂　⑩ 文殊堂
【현(県)지정문화재】
② ～ ⑲ 三徳山三佛寺建造物群
（② 不動堂　③ 元結掛堂　④ 観音堂
⑧ 鐘楼堂　⑯ 野際稲荷　⑲ 三佛寺本堂）
㉔ 正善院庭園

미사사정의 일본유산

2015년에 문화청이 인정한 미사사정의 일본유산 "육근청정과 육감치유의 땅 ~일본에서 가장 위험한 국보 감상과 세계 굴지의 라돈 온천~"은 수행(미토쿠산)과 온천(미사사 온천)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미토쿠산'은 산악수행의 장으로 험준한 지형과 신불습합(일본 토착신앙인 신토와 불교의 융합)의 특이한 건축양식·구조의 건물이 어우러진 독특한 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함은 1300여 년에 걸쳐 많은 이들의 경외를 받으며 지켜지고 있다.
'미사사 온천'은 미나모토노 요시토모의 가신 오쿠보 사마노스케가 미토쿠산을 참배했을 때 흰 늑대를 구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묘견보살이 알려준 온천(흰 늑대 전설)으로 전해지며, 미토쿠산을 참배할 때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는 거점으로 900여 년 간 참배자들의 지친 몸을 치유해 왔다. 미토쿠산 신앙과 미사사 온천의 깊은 관계는 미토쿠산 불의 제전(10월) 및 하나유 축제(5월) 등 전통 행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오늘날 미토쿠산 참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세워진 불당을 방문하여 '육근(눈, 귀, 코, 혀, 몸, 뜻)'을 정화하고 온천에서 '육감(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을 치유한다는 독특한 세계를 구현하고 있다.

국보 나게이레도 불당(내 아이젠도 불당)

기원은 706년 슈겐도의 창시자 엔노 교자가 세 잎의 연꽃을 흩날리며 기도를 드렸더니 그중 한 잎이 미토쿠산에 떨어졌다는 연꽃잎 전설이 전해지는 산부쓰지 절. 본존을 모시는 건물인 국보 나게이레도 불당은 헤이안 시대의 특징을 가지며 '가사이와'로 불리는 단단한 안산암과 부드러운 응회각력암으로 이루어진 암굴을 이용해 절벽에 돌출되도록 짓는 가케즈쿠리(懸造) 기법으로 지어졌다. 지붕은 노송나무 껍질을 인 것으로, 신사의 건축양식인 지붕 앞면을 뒷면보다 길게 빼는 나가레즈쿠리(流造)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본존 불상은 1168년에 만들어진 자오곤겐 입상으로, 그 밖에도 목조 자오곤겐 입상 7구 및 동경 등 중요문화재가 모셔져 있다. (현재는 '보물전㉑'에서 수장, 전시 중)
2001년에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나이테 연대 측정을 통해 현재 불당 건물이 헤이안 시대(794~1185) 후기에 지어진 것이 밝혀졌다.
또한, 엔노 교자가 미토쿠산을 방문했을 때 산기슭에서 불당을 만든 후 큰 기합 소리를 내며 신통력으로 절벽에 있는 암굴에 던져 넣었다고 하여 '던져 넣다'라는 뜻의 "나게이레(投入)도"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